

##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9.2% 역대 최고

-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및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발간
- 2024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발표, 환자 생존율 9.2%, 뇌기능회복률 6.3%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
-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공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9일(화)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서울 종로구) 우봉홀에서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가 개정(개정주기: 5년)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개한다.

\* (급성심장정지)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2006년도 자료부터 수집)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확대를 위해 공모전 개최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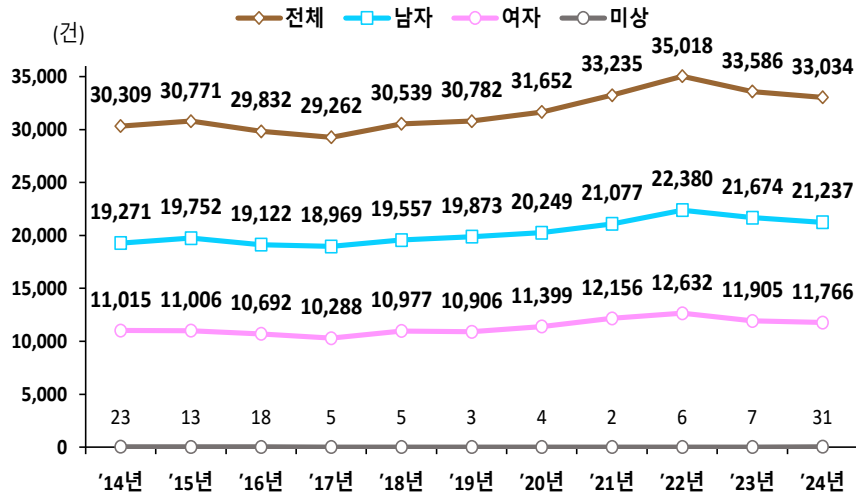
### 1. 2024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2024년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034건(인구 10만 명당 64.7명) 발생하였다. 여자(35.6%)보다 남자(64.3%)에서,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52.9%를 차지하였다(그림 1 참고).

\* 0~9세(0.9%) < ... < 30~39세(3.5%) < ... < 70~79세(21.2%) < 80세 이상(31.8%)

[그림 1] 급성심장정지 성별 발생<sup>1)</sup> 추이 및 연령별 발생 현황

< 급성심장정지 성별 발생 추이(2014~2024) >



< 급성심장정지 연령별 발생 현황(2024) >



1)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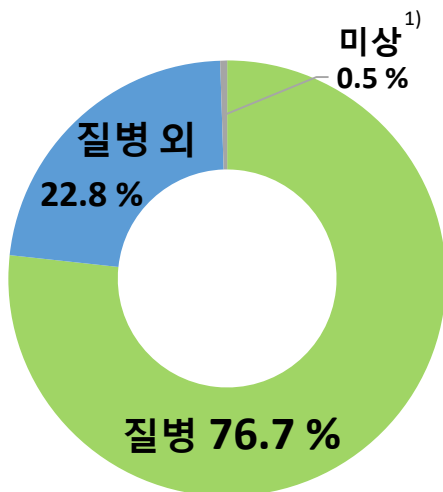
※ 성, 연령 구분은 구급활동일지를 기준으로 산출, 구급 과정에서 성, 연령 구분이 불가한 경우 미상으로 처리

\* 자료원: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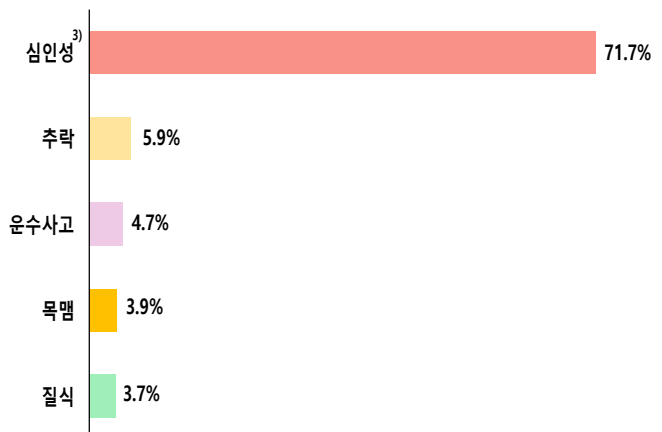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의무기록조사를 완료한 환자는 32,850건(완료율 99.4%)이며, 조사 결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6.7%,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외인으로 인한 경우가 22.8%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 자체의 기능부전에 의한 심인성 원인이 전체의 71.7%를 차지하였다(그림 2 참고).

[그림 2]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

< 급성심장정지 발생 원인(2024) >



<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세부 원인<sup>2)</sup>(2024) >



1) 미상은 의무기록상 심장정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2) 주요 발생 세부 원인 중 심인성은 질병에 해당, 추락, 운수사고, 목매, 질식은 질병 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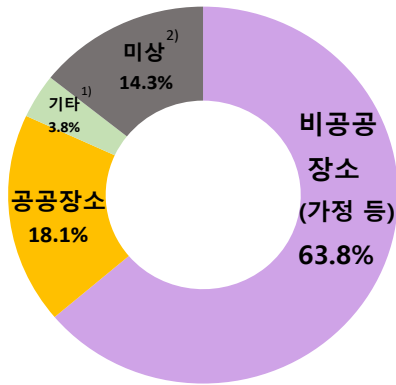
3) 심인성은 심장정지 발생 원인이 심장 자체의 기능부전에 의한 경우,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서 질병의 상세 항목에 속하지 않은 경우

\* 자료원: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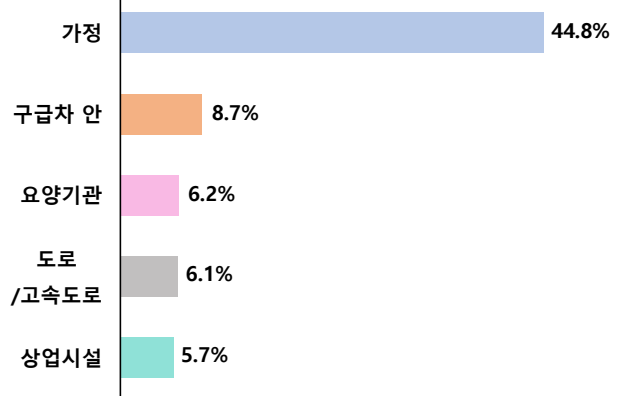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의 공공장소(18.1%)보다 비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63.8%)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4.8%로 가장 많았다(그림 3 참고).

[그림 3]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장소

< 급성심장정지 발생 장소(2024)>



<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세부 장소<sup>3)</sup>(2024)>



1) 기타는 산, 강, 바다 등에 해당

2) 미상은 의무기록상 심장정지 발생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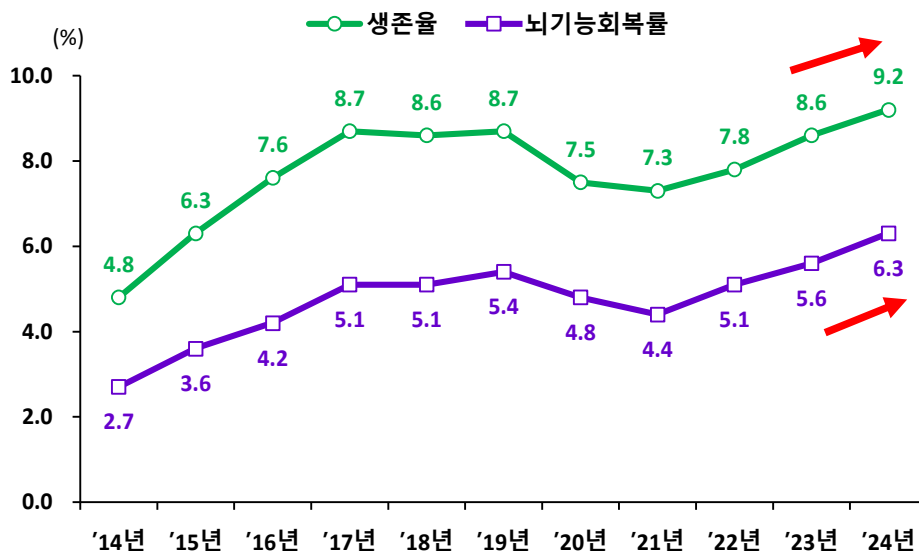
3) 주요 발생 세부 장소 중 가정, 구급차 안, 요양기관은 비공공장소에 해당,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은 공공장소에 해당

\* 자료원: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 2.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역대 최고 수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9.2%, 뇌기능회복률은 6.3%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년도 대비 각각 0.6%p('23년 8.6%), 0.7%p('23년 5.6%) 증가하였다(그림 4 참고).

[그림 4] 급성심장정지 생존율<sup>1)</sup> 및 뇌기능회복률<sup>2)</sup> 추이(2014~2024)



1)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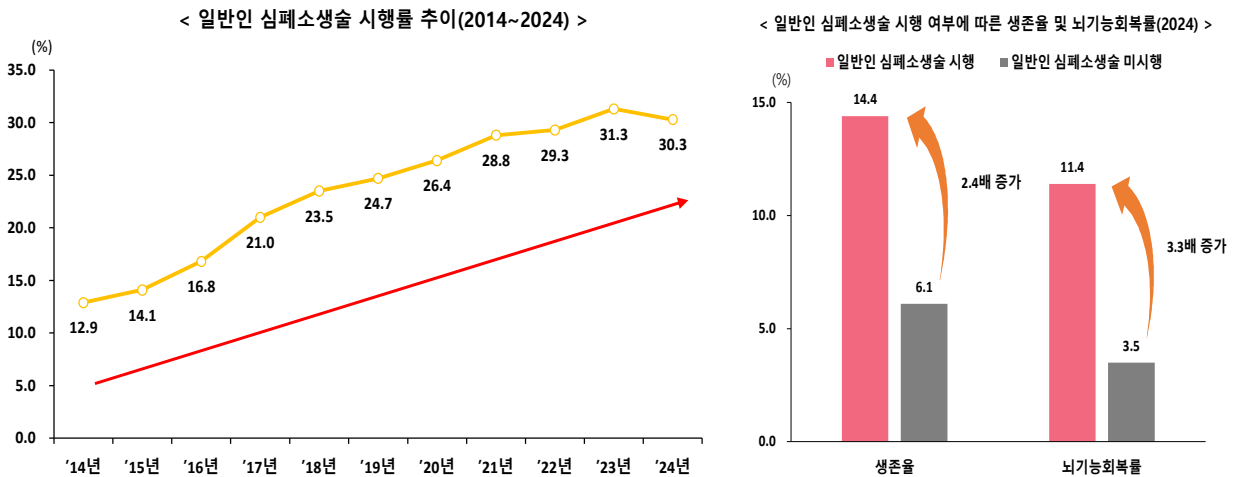
2)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비율

\* 자료원: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 3.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라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30.3%였으며, 병원 도착 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4%, 미시행된 경우는 6.1%로 시행 시 생존율이 2.4배 높았다. 뇌기능회복률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11.4%, 미시행된 경우 3.5%로, 심폐소생술 시행 시 뇌기능회복률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고).

[그림 5]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sup>1)</sup> 추이 및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sup>2)</sup> 및 뇌기능회복률<sup>3)</sup>



1)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

2)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비율

3)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비율

\* 자료원: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 4.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부에서는 2025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지난 9~10월에 진행한 「생존 고리의 시작, 당신의 심폐소생술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대상 1점, 영상/슬로건/포스터 우수상 각 1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전은희 과장의 '급성심장정지조사 추진현황 및 2024년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제2부에서는 ▲급성심장정지조사 자료 활용, 제3부에서는 ▲생존자 예후 개선을 위한 신고 상담 및 현장 단계 강화 전략, 제4부에서는 ▲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보고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 5.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총 7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에서 2020년 이후 발표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국제 합의 내용과 이후 추가로 발표된 연구논문 등을 고찰하여 진행되었다.

\*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교육 및 실행, 응급처치

\*\* 미국심장협회, 유럽소생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창설, 2000년부터 5년 주기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심혈관 분야에 대한 국제 합의와 치료 권고’ 발표

주요 개정사항에는 기본소생술에서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된(편한) 손이 아래로 향할 것을 제안하고,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는 가슴압박부터 시작하지만,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은 구조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비대면 교육보다는 실습 교육을 동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 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응급의료 상황 속에서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협력하여 역대 최고의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환자의 치료결과 향상을 위해 소방청은 구급대 전문 처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유도를 위한 영상통화와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처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장정지 환자 목격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6년 1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통계집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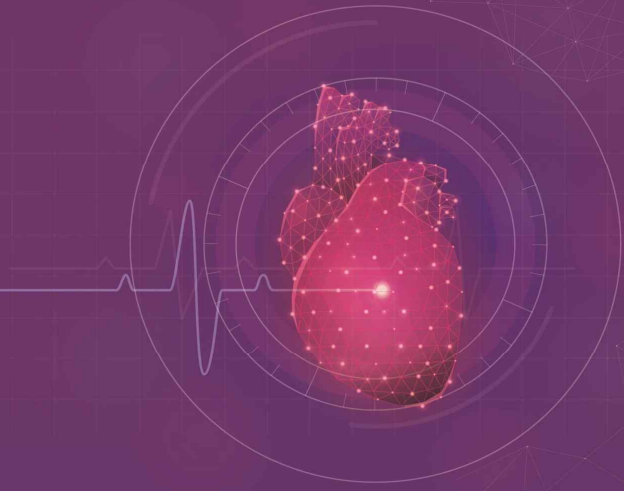
<붙임> 1.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포스터  
2. 급성심장정지조사 개요

담당 부서 <총괄>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희 (043-219-2910)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선임연구원	김지수 (043-719-7416)
담당 부서 <협조>	소방청 구급의료팀	책임자	팀 장	박용주 (044-205-7640)
		담당자	소방장	유자영 (044-205-7658)



#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2025. 12. 9. (화) 13:20 ~ 17:5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1층 우봉홀



시간	주요 내용	좌장 및 연자
13:00 - 13:20	참가자 등록 및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이용자 만족도조사	
<b>제1부.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회 및 결과보고</b>		
13:20 - 13:25	개회 및 국민의례	
13:25 - 13:30	개회사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질병관리청)
13:30 - 13:35	환영사	박근오 119대응국장(소방청)
13:35 - 13:55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수여, 심폐소생술 공모전 수상작 시상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질병관리청)
13:55 - 14:00	심폐소생술 공모전 수상작 소개	
14:00 - 14:05	기념사진 촬영	
14:05 - 14:25	급성심장정지조사 추진현황 및 2024년 결과보고	전은희 손상예방정책과장(질병관리청)
14:25 - 14:30	휴식시간	
<b>제2부. 급성심장정지조사 자료 활용</b>		좌장: 송경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4:30 - 14:50	실시간 피드백장치 및 비정형 데이터기반 심장정지 생존율 향상 전략	최동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14:50 - 15:10	급성심장정지조사-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	박건우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b>제3부. 생존자 예후 개선을 위한 신고 상담 및 현장 단계 강화 전략</b>		좌장: 류현욱 교수(경북대학교병원)
15:10 - 15:30	영상통화 기반 일반인 심폐소생술 유도 및 프로토콜의 발전 방향	한대룡 소방장(제주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5:30 - 15:50	펄블런스 출동 체계 및 대응 사례 공유	김진호 소방교(경기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15:50 - 16:10	휴식시간	
<b>제4부. 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보고</b>		좌장: 황성오 이사장(대한심폐소생협회)
16:10 - 16:25	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과정 및 주요 개정사항	정성필 교수(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16:25 - 16:45	2025년 기본소생술 가이드라인 보고	장용수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6:45 - 17:05	2025년 전문소생술 가이드라인 보고	차경철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7:05 - 17:25	2025년 소아소생술 가이드라인 보고	김도균 교수(서울대학교병원)
17:25 - 17:45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조규중 교수(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17:45 - 17:50	정리 및 폐회사	전은희 손상예방정책과장(질병관리청)

- (목적)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하여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 제고

\* '11년 국가통계 승인(승인번호 제117088호)

- (대상)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수

\* (급성심장정지) 급작스럽게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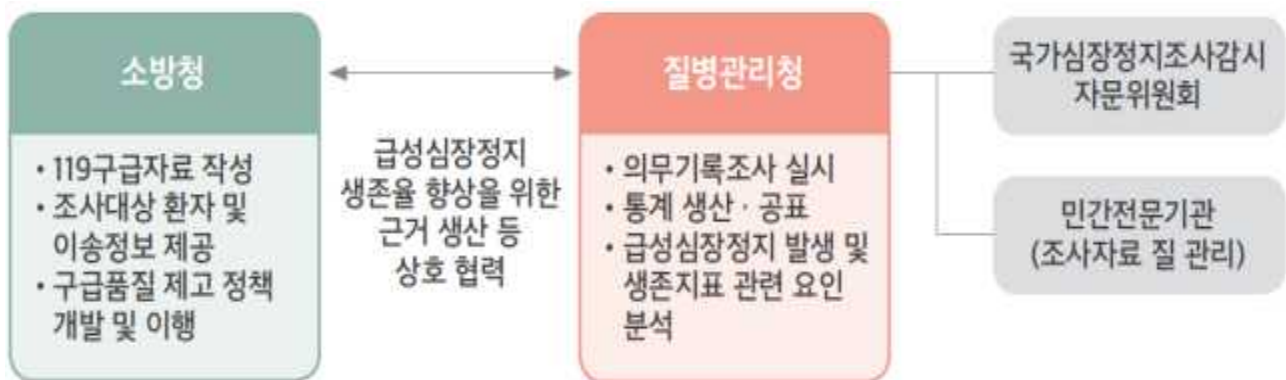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2020~2024) 급성심장정지 이송 및 조사 현황

구분	'20	'21	'22	'23	'24
119구급대이송 환자(건)	31,652	33,235	35,018	33,586	33,034
의무기록조사 완료자(건)	31,417	33,041	34,848	33,402	32,850
조사율(%)	99.3	99.4	99.5	99.5	99.4

- (방법) 구급활동일지 등으로부터 대상 추출, 이송병원 협조 하에 의무기록조사

- (내용) 발생 시 특성, 병원 전 처치내용(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실 처치내용, 입원 및 전원 현황, 생존 여부 및 신경학적 상태 등

- (수행체계)



- (주요 산출지표) 발생률, 생존율, 뇌기능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

- (결과공개) 심포지엄 개최, 통계집 발간, 원시자료 공개